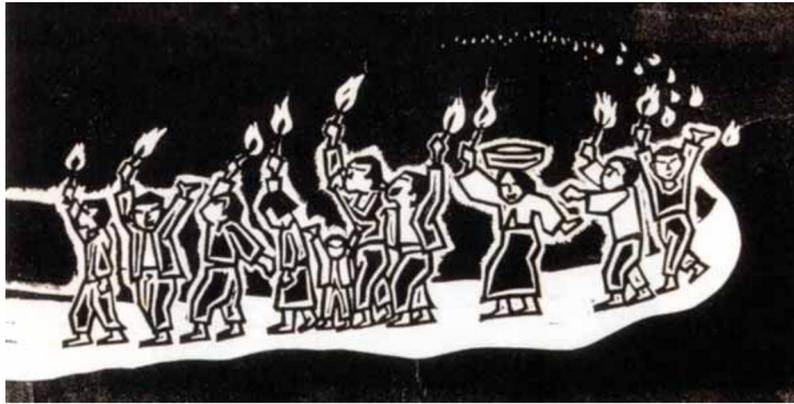


광주항쟁·세월호·촛불혁명... '진실의 기록'

문화로 만나는 오월

7 오월 전시 2제

5·18 38주년을 맞아 의미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오월판화'의 홍성담 작가가 광주민중항쟁을 담은 원판 판화를 선보이며 김화순 작가는 오월의 정신을 이은 촛불 집회 등의 모습을 그린 작품을 전시 중이다.



홍성담 작 '촛불 행진'

■ '홍성담 판화 한마당'전 31일까지 메이홀... 판화 작품 50여점 전시

해마다 오월과 관련한 전시회를 열고 있는 자생적 시민공간 메이홀(광주시 동구 문화전당로)은 오는 31일까지 '홍성담 오월판화 한마당'전을 개최한다. 최근 광주항쟁을 소재로 한 연작판화집 '오월'(도서출판 단비)을 출간하기도 했던 홍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책에 실린 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역사는 우리의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작가는 '오월판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손으로 빚어진 그림'이라고 말한다. 메이홀에서 선보이는 판화는 '광주항쟁'의 진실과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떠나며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려는 의미있는 작품들이다. 전시에서는 1980년 혹독한 삶 속에서 서로 나누고 보듬고 도우며 만들어진 아름다운 풍경들을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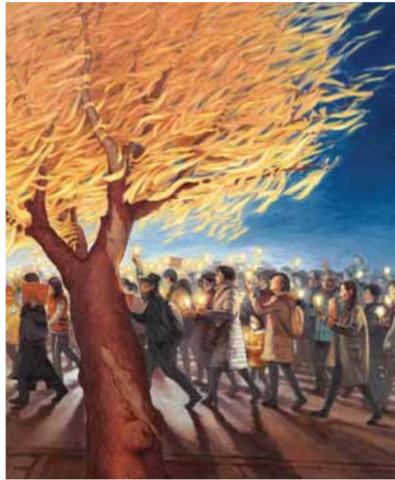
은 '대동세상', '대동세상 2'를 비롯해 '어두운 밤을 물리칠 씨앗'이 될 햇빛을 들고 길을 나서는 이들을 담은 '햇불행진' 등 그의 대표작을 모두 만날 수 있다. 또 '얼굴을 마주하고 삶이 이어지고, 손을 잡고 핏줄이 이어진' 시민들의 헌혈 현장을 담은 '헌혈 행진'은 남녀 노소를 아우르는 이들의 밝은 표정과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에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한다. 그밖에 시민들에게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간직한 모습을 담아낸 '투사회보' 시리즈, 계엄군의 잔인한 모습을 기록한 '혈루' 시리즈, 오월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깃발춤' 등도 눈길을 끌며 전대일 역사를 담은 작품도 만날 수 있다. 홍성담의 판화는 술하게 찍혀졌다' 일부 작품의 목판은 이제 무더져 더 이상 찍어낼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온 대학가와 수많은 단체, 기관

의 기금 마련 행사 등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준 결과다. 메이홀은 이번 전시를 위해 평판으로 제작한 아트 포스터 6점을 전시하고 판매도 진행한다. '대동세상', '사시사철' 시리즈 등이다. 아트 포스터에 새롭게 담긴 판화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는 갤러리바 0518(오후 7시~새벽 2시, 010-5615-2268)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 15일에는 서승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강연회도 열렸다. 관람시간 매일 낮12시~오후 6시. 문의 010-9502-7555.

■ 김화순 개인전 24일까지 은암미술관... 길에서 꽃이 된 사람들 이야기

오랜 세월동안 묵묵히 오월 정신을 잇고 있는 김화순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24일까지 광주 은암미술관에서 열린다. '길-사람-꽃'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오월 정신을 지나 촛불혁명과 세월호 등을 거치며 길 위에서 꽃이 된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세월호 유가족을 전면에 세운 '그날-영석엄마', '광화문에 서다', '아버지 제삼렬씨는 우릴 보며 웃는다' 등의 작품에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그날의 진실, 촛불혁명의 모습이 담겼다. 지식 있고 길 위에 선, 물기 어린 유가

족의 눈을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품이다. 세월호 참사 후 세월호 광주 시민상주모임에서 활동하고 동료예술인들과 '예술인 행동장'을 꾸려온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예술인 행동장 행사에서 그렸던 대형 길게 그림 '우리는 모든 진실을 원한다', '어떤 폭력에서도 평화의 꽃을 들고 서 있겠다'도 전시한다. 김 작가는 대학 미술매 활동을 통해 거리와 광장, 농촌 등에서 길게그림과, 깃발, 벽화 등을 제작하고, 졸업 후 꾸준한 미술활동을 하며 민중미술 작가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31-52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화순 작 '우리는 촛불이 되었다'



지난해 열렸던 '문화다양성 확산 페스티벌'.

문화 다양성 주간 '차이를 즐기자'

20일~27일 광주 곳곳 다양한 프로그램

21세기는 문화 다양성 시대다. 차이에 대한 인정과 다름에 대한 포용은 더불어 사는 세상의 전제조건이다. 매년 5월 21일은 UN이 지정한 문화다양성의 날이며 21일~27일은 문화다양성 주간이다. 문화 다양성 주장을 맞아 광주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의 주제는 '차이를 즐기자'로, 전국 27개 무지개다리사업 운영기관에서 같은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광주에서는 오는 20일(오후 3시) 수완호수공원에서 '문화다양성 확산 페스티벌'이 열린다. 광산구 제6회 세계음식문화축제와 연계한 축제는 문화다양성 체험부스, 티벳음악·국악·아프리카 타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호주·캐나다·태국·베트남 등 세계 8개국 음식 체험부스가 설치돼 흥미를 끈다. 페스티벌의 주무대에서는 티벳 출신 '카라 뽀뽀'의 티벳 전통악기 연주를 곁들인 노래를 비롯 6개국 여성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한국 전통무용, 필리핀 전통 무용, '풍물연희예술단 광대'의 사물놀이, '뮤탐보이스'의 성악공연,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나포'의 관객 참여형 짬배공연 등 국가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이 무대를 달굴 예정이다. 광주의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포럼은 오는 25일(오후 4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포럼은 지난 2016년부터 광주 문화재단 등 광주문화기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진행해왔다. 올해 주제는 '문화다양성의 도시 광주의 현재와 미래'. 김경례 전남대 사회경제생선연구단 연구교수의 기조발제와 토론자들의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문의 062-670-7466.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명작 감상

인문지행 문화예술기획

20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세계미술관의 명화를 감상하는 35회 인문지행의 문화예술기획이 오는 20일 오후 2시~4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이번 강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명작들을 감상하는 두 번째 시간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안 베르메르와 피터르 드 호흐, 안 스텐의 작품을 중심으로 감상한다. 베르메르의 '우유를 따르는 여인', '연애편지', '골목길'과 호흐의 '세탁물을 옷장에 정리하는 여자들'과 '전원의 집', 안 스텐의 '화장대'와 '성 니콜라오 축제' 등이다. 또한 베르메르의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사진), '델프트의 풍경' 등 헤이그의 마우리츠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다.



기획과 진행은 '인문지행'의 대표 심옥숙 박사가 맡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10-5205-5668, 062-229-0687. 인문지행(cafe.daum.net/h-aret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솔리스트앙상블 콘서트 2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여성솔리스트앙상블(사진)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콘서트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오는 21일(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5층 소공연장)에서 광주여성솔리스트앙상블 '사랑나눔콘서트'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는 봄 가곡 '나를 깨는 처녀', 영화음악 '닥터 지바고', '대부', 오페라 '마술피리', '카르멘', '박쥐'

등 다양한 장르가 선곡됐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하모니와 파워풀한 보이스를 선사한다. 광주여성솔리스트앙상블은 지난해 리더 이현희를 중심으로 유화파 출신 15명의 솔리스트들로 결성된 전문 여성앙상블 단체다.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고등학생 이하) 1만원. 전화예약 062-670-794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료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보증금 및 연회비

| 구분 | 보증금 | 연회비 (VAT포함) | 비고 (2018년 기준) |
|----|--------|-------------|------------------------------|
| 개인 | 850만원 | ₩ 1,920,000 | 1구좌 기명1인 |
| 가족 | 1275만원 | ₩ 3,140,000 |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
| 법인 | 1700만원 | ₩ 4,350,000 |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

